



**남원 도동동, 복지기동대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남원시 도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26일, 복지기동대원들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한 어르신(80대) 주거 공간은 이사 온 지 30여년이 지나도록 도배·장판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 여기저기 찢어지고 곰팡이가 번식한 상태로 모두 교체 지원하였다.  
또 다른 대상자는 저소득층 심한 장애인가구로 베란다 천장이 오래되어 부식되었고, 노후된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도 되지 않고 물도 데우지 못하는 상태로 보일러 교체와 더불어 베란다 천장 보수 및 전등을 교체했다.  
이번 복지기동대 사업은 지난 3월 21일 발대식 이후 6월 중순 복지기동대 시제회의를 통해 선정된 3가구 중 2가구를 먼저 지원, 복지기동대는 2024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위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칭찬합니다”... 휴무일 봉사활동 귀감**

군산해경, 소속 박윤근씨 경로식당 봉사 올해만 누적 100시간 넘겨... 400시간 목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재)는 군산해경 홈페이지의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군산해경 소속 직원을 칭찬한다는 글이 게재되며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군산해경 홈페이지에 “박윤근 선생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자신을 경로식당 영양사라고 밝힌 게시자는 “박윤근 선생님께서 저희 군산경로식당을 방문해 주셔서 조리된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시거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바쁘실텐데 저희 군산경로식당을 방문해 주셔서 봉사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하며, 칭찬해 드리고자 짧게나마 글을 남깁니다”고 전했다.  
칭찬의 주인공인 군산해경 소속 1001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윤근 조리사(49)다. 그는 지난 2020년 해양경



찰에 합정조리사로 임직해 취사와 주·부식 수급·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박씨는 현재 군산해경해우리봉사단, 군산다스니봉사단 청소년사랑의방자 등 3곳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휴무일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씨는 쉬는 날을 활용해 매년 50~70시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만 누적 100시간을 넘겨 주변에 귀감을 사고 있다.  
박윤근 조리사는 “저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알려져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10여년 전 아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 지금은 제 삶의 활력이자 행복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 올해 목표인 400시간을 채우기 위해 꾸준히 선정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만호기자



**전주대, 2024 하계 농촌봉사활동 실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4~28일 5일간 고창지역 10개 마을에서 2024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총학생회에 따르면 3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한 농촌봉사활동은 “농민 뉘하냐(농활 가면 뉘 하냐)”라는 주제로 한창 높고 싶어진 여름방학의 시작을 농촌에서 보람을 찾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장 최도진(영어영문학과 4년) 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이뤄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입생 박현비(스마트미디어학과 1년) 학생은 “어릴 적 고장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데 자신을 뉘하냐고 친근히 불러줘 여기 계신 모든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미래소방관 직업 체험행사 가져**

남원소방서는 지난 25일 늘푸른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소방관 직업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소방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며, 체험 내용은 △119신고요령 △연기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 및 방수 체험 △소방차 내부 견학 및 사다리차 전개 관람 △방관복장 입어보기 등 소방관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림 봉사단 익산 다이로움 밥차, ‘건강한 여름 나기’ 삼계탕 지원**

익산시에서는 매주 수요일 기부자의 성금이나 물품 기부에 더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다이로움 밥차가 운영되고 있다.  
26일에는 (주)하림 자원봉사단이 함께하는 다이로움 밥차가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하림 사랑 나눔 실천단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취약계층 400여 명에게 삼계탕을 직접 대접했다.  
이리중앙교회는 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을 개방해 대상자들이 즉석에서 조리된 삼계탕을 편하게 맛볼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들뜬한 삼계탕 보양식을 대접받아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정호석 (주)하림 대표는 “직원들이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을 실천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하림은 지역의 대표 기업이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방면으로 숭순수행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름철 보양식품인 삼계탕으로 영양 만점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하림은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철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 어반테크닉스와 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26일 어반테크닉스 주식회사(대표 박재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박재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동시에 저희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중앙로타리클럽, 이웃돕기 물품 기탁**

남원시는 26일 남원중앙로타리클럽(회장 양재우)에서 5백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기부 물품(전기온열매트, 보행보조기)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중앙로타리클럽은 평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밝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기탁된 물품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우 회장은 “겨울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약예방 캠페인’ 전개**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민원인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직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주교도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홍보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실시하였다.  
전주교도소를 비롯한 54개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대책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다.  
수용자 보관 및 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 반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용자 마약 반응 검사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이고 강화된 관리를 통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으며, 마약수용자 자기주도형 재활프로그램 과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오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 제6기 건축위원회 위촉식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제6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 건축물 등을 심의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6기 건축위원회는 건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기술사 건축사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새만금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만호기자

**김제시, 장마철 대비 환경정화활동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내 공무원 및 사회단체, 주민단체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여름은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환경정화 활동은 침수 악취 등 쓰레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요 도로변과 배수구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빗물받이가 막히면서 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경험은 교훈삼아, 빗물받이 주변의 담배꽂초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또한, 현장에서 내내내 캠페인, ‘쓰레기 배출요일제’ 등을 직접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시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

남원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등 관계 부서의 범용 검토 및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한 복합민원 인허가 협의의 경우 서면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처리를 해왔으나 앞으로 심의부서에서는 종이 서류 없이 실시간으로 심의하고 민원인은 심의 과정 및 진행 상태를 남원시 누리집, 민원처리 알림톡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남원시 민원과는 지난 14일 복합민원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위해 복합민원 협의부서 및 인·허가 담당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강사를 초빙해 온라인 심의 과정 및 시스템 사용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수질환경 보전 협의회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26일 장수군 단평저수지에서 장수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원, 장수읍 주민센터 직원, 인근지역 농업인과 지사 직원 등 50여명은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수길 쓰담쓰담’ 환경정화 행사 및 수질환경보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함께 가꾸는 호수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대표 친환경 ESG캠페인 행사로서 일반시민, 지자체와 공사 직원들이 함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이다.  
이날 무진장지사는 단평저수지에서 환경정화 행사에 이어 수질환경 보전협의회 회의도 진행했다. 수질환경보전회는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및 수혜지역 농민 대표 등 7명과 공사 직원 11명으로 구성되며,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문제 해결 및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장수=곽관호 기자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 진안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이사장 진성)는 26일 진안군청 상 황실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주순)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진안사랑장학재단과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가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한 협약과 관련해 진행했다.  
이 날은 감룡장학회 장학금 기탁식과 더불어 마이산탐사부터 봉사단이재현 단장이 참여해 지역내에 육성세 쉼터라며 1년 동안 모은 동전저금통 100개를 기부하기도 했다. /진안=우태민기자